

**안전·안심
민생 구청장**



**1 진짜 일꾼
진교훈**

배포일	2023. 10. 3(화)	담당	도건 (010-9686-6068)
-----	----------------	----	--------------------

“모두를 위한 주거” 진교훈 ‘주거혁신 5대 방안’ 발표

주거혁신특구 지정,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강화... “재개발, 재건축 성공 완수”

‘안전·안심·민생구청장’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2일 ‘주거혁신 5대 방안’ 공약을 발표하고, “원도심 주민의 숙원인 주거환경 개선, 지역 불균형, 전세사기 범죄, 주차난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돌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는 “마곡 중심 신도심이 개발되는 동안 원도심 개발이 지체되면서 기반시설과 도시환경이 낙후됐다”며 “1990년대 건설된 가양·방화·등촌동 임대주택단지가 30년이 지나면서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하고, “모두를 위한 주거, 미래도시 강서를 위한 ‘주거혁신 5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의 ‘주거혁신 5대 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해 강서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을 구청장이 직접 챙긴다.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공공주택단지,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피해보상방안 마련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의 신속 추진 등이 핵심 내용이다.

둘째, 화곡동·방화동 등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특구(주거혁신특구)로 지정해 금융부터 세제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확대 개편하고, 외부인력을 영입한 ‘재개발·재건축 전문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원도심 재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셋째, 당장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즉시 적용 가능한 주거환경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넷째,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착수 △특별법 보완 입법 사안 발굴 및 신속 통과 추진 △임대인 부재에 따른 주거관리 공백 및 위협 노출 가구 지원 △HUG, 경찰 등과의 협조로 ‘나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하는 전세사기 방지대책 마련 등이다.

다섯째, 주거인프라 확충과 아울러 ‘주거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정주여건 개선부터 경제자립 및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주거취약지역의 청년·중장년·노년 등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모델을 발굴한다.

진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실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진짜 일꾼 진교훈이 주거혁신 5대 방안 실천으로 강서를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청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울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 싸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

※ 진교훈의 네 번째 약속 전문 / 관련 사진 첨부

진짜일꾼 진교훈의 네 번째 약속

<미래도시 강서를 위한 주거혁신 5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포국제공항을 품고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 97%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서쪽 변방에 머물렀던 강서구에 ‘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마곡지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LG, 코오롱, 넥센 등 대기업과 16만여 명의 직원이 입주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몰리고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강서구는 서울 서남권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서가 마곡 개발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곡 중심으로 신도심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원도심 개발이 지체되면서 기반시설과 도시환경이 낙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도심의 빌라촌 입주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범죄는 강서구민의 주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건설된 가양·방화·등촌동 일대 임대주택단지가 건립 30년이 되면서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원도심 주민들의 고민거리인 주거환경 개선, 지역 불균형, 전세사기 범죄, 주차난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돌파해 나가야할 시점입니다.

‘진짜 일꾼’ 진교훈이 모두를 위한 주거, 미래 도시 강서를 위한 ‘주거 혁신 5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실에 재개발·재건축 상황판을 설치해 강서구 전체 정비구역 현황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모아타운, 신통기획,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노후공공주택단지, 재정비촉진사업 등에 대해 사업별, 구역별,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피해 보상 방안 역시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 절차의 거품도 확 빼겠습니다. 주민 이견 조정부터 행정절차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또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 아래 복잡한 행정절차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화곡동, 방화동 등 원도심 지역을 ‘재개발·재건축 특구(주거혁신특구)’로 지정하고 금융부터 세제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구색만 갖춘 기존의 원도심활성화추진단을 ‘재개발·재건축 전문지원센터(가칭)’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인원을 확충하고 외부 자문위원 위촉을 통해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당장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주택의 리모델링과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즉시 적용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 받으며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의 보완 입법 사안을 발굴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하고, 신속한 통과를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부재로 발생한 주택관리 공백과 이로 인한 단전과 단수 등 긴급한 위협에 노출된 가구에 대한 지원도 서두르겠습니다. HUG, 경찰 등과 협조로 ‘나쁜 임대인’ 정보를 공유해서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섯째, 주거인프라 확충과 아울러 ‘주거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정주 여건 개선부터 경제자립 및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주거취약지역의 청년, 중장년, 노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모델을 발굴하겠습니다.

저 진교훈, 현란하고 노골적인 선거용 구호로 승부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공약’으로 ‘진짜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실무

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실제 성과로 말하겠습니다. 오직 재개발, 재건축 성공 완수를 위해서 온갖 걸림돌들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어 가면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진짜 일꾼’ 진교훈이 ‘주거혁신 5대 방안’ 실천으로 강서를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미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울지 않도록 제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